논어 11편 선진 13장 · 원문·풀이

魯人爲長府。閔子騫曰：「仍舊貫，如之何？何必改作？」子曰：「夫人不言，言必有中。」

독음 · 로인위장부 민자건왈 잉구관 여지하 하필개작 자왈 부인불언 언필유중

쉬운 풀이(요약) · 창고를 새로 지으려는 일에 민자건이 기존 것을 쓰자고 하자, 공자는 그가 말은 적어도 하면 핵심을 짚는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魯 노둔할 로 로 / 人 사람 인 / 爲 할 위 / 長 길 장 장

府 곳집 부 부 / 閔 위문할 민 민 / 子 아들 자 / 騫 말 배 앓을 건 건

曰 가로 왈 / 仍 인할 잉 잉 / 舊 옛 구 구 / 貫 꿸 관 관

如 같을 여 여 / 之 갈 지 / 何 어찌 하 하 / 必 반드시 필 필

改 고칠 개 개 / 作 지을 작 작 / 夫 지아비 부 부 / 不 아닐 불

言 말씀 언 언 / 有 있을 유 / 中 가운데 중 중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